

장태평 농림수산식품장관 취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장태평농림수산식품장관은 8월 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장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강한 농식품산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최우선 농정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우선 강한농림수산업육성을 위해 산자조직화 규모화, 농어업금융 개편지원 등을 강조했다.

중소 농가에게는 품목별 조직화를 지원하여 공동생산, 판매방식을 통해 이용과 경영의 규모화가 실현 되도록 전문 농어업인들에게 기업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자본, 규제완화측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산업은 농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육성하되 국내산과 외국산 농식품에 대한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정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며, 또 농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국내산뿐만 아니라 외국산도 국경에서 가정까

지 단계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산지표시제, 이력추적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외식산업은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고 한식의 세계 5대 음식으로 도약, 수출 지향형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농식품 수출확대의 초석으로 다진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구조도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산지유통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이를 위해 각종유통시설과 물류, 마케팅지원을 품목별생산자단체에 집중지원 할 것이며, 농어촌의 고령화문제에 대해서는 선진복지정책을 농어촌에 먼저 시범시행하고 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장 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주는 농어업인이므로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객인 국민과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해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식품을 제공할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임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취임 그러나 농정 현안은 ‘칩칩산중’

- 재경부, 농림부 농정국장 거친 정통 전문관료 출신
- 쇠고기 청문회, 농자재값 급등 대책 대응 등이 절실
- 민주당, 청와대의 일방적인 장관 임명에 강력 반발

- 청와대, 신임 농식품부 장관으로 장태평씨 (전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임명. 반면 ‘참다래 아저씨’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된 정운천 전 장관은 취임 5개월만에 조기 퇴진
- 신임 장 장관이 재정경제부와 농림부 농정국장 등을 거친 정통 관료로서 인정받고 있지만, 쇠고기 정국을 마무리 짓고 농자재값 급등 대책 등을 요구하는 들끓는 농심을 달래, 농협 개혁 등 산적한 농정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
-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촛불집회가 주춤하고 있으나 쇠고기 청문회가 18, 19일로 예정돼

있고, 쇠고기 수입대책으로 시작한 식육 원산지표시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 더욱이 산지 한우값 및 송아지값은 물론 돼지고기값도 급락하고 있어 사료값 급등으로 시달리는 축산업 전체의 붕괴 현상까지도 우려되는 상황

- 한농연이 1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 비료·사료·면세유 등의 농자재값 급등 문제에 대한 대책도 시급. 국회의 원구성 및 의사일정 진행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각종 세제혜택 및 환급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 늦춰지고 있으며, 농식품부 스스로가 시설농가의 겨울 영농이 어려울 지경이라고 토로할 정도로 위기 상황

